

# 야생 상태 근접한 사슴 사육으로 소비자의 신뢰 구축해야

이정록/송원사슴목장 대표

지금까지의 양육이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체험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의 양육은 산업으로서의 자리를 어떻게 굳혀 나가야 하느냐가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한다.

양육이 산업으로서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책의 배려와 학술적 뒷받침이 따라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육인의 확고한 입지가 있어야 한다. 양육인 자신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이 양육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양육인의 투철한 의지가 있을때 정책적 배려도 학술적 뒷받침도 빛을 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WTO라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살아 남는 조금은 냉혹한 세상이다. 안일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시대에 부합하는 행보를 찾아야 한다.

사슴은 세계 여러곳에서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녹육을 생산하는 양육일 따름이다. 녹육 생산에 적합한 기후풍토와 환경을 가졌으니 그렇게 발전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양육은 녹육 생산을 지향하고 녹육 생산에 적합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비록 저들이 양육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녹육 생산 선진국이지 녹육 생산 선진국이 아니므로 위축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만 부산물로 얻어

진 녹육이 우리나라 녹육 시장을 지배해 왔다는 점이 석연치를 못하다. 하지만 외국의 사슴 사육 목적과 실태가 차츰차츰 베일을 벗어가고 있으니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다.

소 사육에서 우유를 생산하는 낙농과 고기를 생산하는 육우가 맥을 달리하듯이 양육도 녹육을 생산하는 양육과 녹육을 생산하는 양육으로 조만간 구분지어 정착하리라고 본다. 우리는 녹육 생산에 적합한 기후풍토를 가졌으니 그 천혜의 조건을 바탕으로 녹육 생산 양육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래서 녹육 생산 양육에서 얻어진 순전히 군더더기에 불과한 녹육이 더 이상 우리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들의 사슴 사육 방법이 우리의 사슴 사육에 모델이 될수는 없다. 우리의 여건에 맞는 그리고 양질의 녹육 생산에 적합한 사육 체제를 독창적으로 연구 개발 하여야 한다.

양육을 어떤 방향으로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소비자이다. 사슴 사육 실태가 백일하에 날날이 드러났을때 소비자가 어떤 사육 형태에서 생산된 녹육을 선호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을 짚어 보기로 하자.

어떤 산업이든 같은 맥락이겠지만 산업이

흥하느냐 쇠하느냐는 소비자의 욕구를 얼마만큼 충족시켜 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절대적으로 작용을 한다. 소비자가 외면을 하면은 그 산업은 무너지게 되고 소비자가 달가워 하면은 그 산업은 번창할 것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녹용은 과연 어떤 녹용일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깊은 산속에서 오만가지 풀을 먹고 자란 야생 상태에서 채취한 자연산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일뿐 불가능하므로 희망사항에 그칠 일이다. 비록 그것이 희망사항 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자연산에 대한 미련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한 자연산에 근접할 수 있는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소비자를 흡족하게 하는 첩경이며 또한 우리가 가야할 양록의 길이다.

자연산에 근접하는 방법으로 방목형태의 사슴 사육을 꿈고 있지만 자연산의 개념과 방목 사육의 개념은 일치한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잡관목류 및 산야초는 재발아력이 극히 미약하여 방목에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엔 고사하게 되고 서양 목초로서 초지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된다면 다같이 서양 목초만을 먹고 자란 사슴에서 얻어진 녹용을 기후풍토가 상이하다는 조건만으로 국산 녹용이 월등히 우수하다는 홍보가 설득력이 있겠는가.

자연산의 의의는 산에서 자란 온갖 풀을 섭취하는데 있다고 봐야 옳다. 그리고 사슴을 방목 형태로 사육을 해야 승산이 있다면 대부분의 양록 농가들은 금방 벽에 부딪치게 된다. 산지가 70%라고는 하지만 방목을 할만한 산지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방목을 고집할 수는 없지만 배재할 수는 없다. 사슴의 생활터전이 풀밭이어야지 똥구더기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사슴 사육에서의 방목은 방목장 내에서 풀사료를 자급하는 개념이 아닌 풀이 생명을 유지하여 풀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풀사료를 자급하려면은 방대한 방목장이 필요하

지만 풀밭으로서의 기능만 유지한다면 훨씬 면적이 줄어들터이니 방목 여건이 그만큼 쉬워질 것이다.

양록에서의 방목은 풀밭이라는 개념으로 사슴의 고고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사슴의 사육목적이 신비한 약효를 낼 수 있는 녹용을 생산하는데 있는 만큼 사슴이 배설물이 너절하게 깔려 비좁은 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깊은 산, 울창한 숲속은 못되더라도 최소한 풀밭에서는 살아야 할 것이다.

풀사료는 부득불 산에서 베어다 주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다. 흔하디 흔하게 산야초가 아닌가. 그만한 수고로움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수입 건조에 의지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산에서 자란 질 좋은 조사료를 듬뿍 먹고 자랐다면 자연산과 크게 다를바가 무엇이겠는가.

여기서 한가지 욕심을 더 부러본다면 사료포를 조성하는 것이다. 서양 목초가 아니고 우리나라 산지에 자생해 온 약초를 사료포에 재배하는 것이다. 수량이야 서양 목초에 비유할 바 못되지만 배를 채우자는데 목적이 있음이 아니다. 수단그라스를 급여하느냐 당귀나 작약같은 약초를 급여하느냐 하는 것은 약효 부분은 미지수로 남겨 두더라도 우선 시각적인 차이에서 상당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약초의 종류가 다양할수록 효과는 증대될 것이다.

우리나라 양록은 사슴이라는 고고한 기품을 손상시키지 않는 그리고 신비한 약효를 낼 수 있는 아니 신비한 약효가 낱것 같은 사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사슴을 야생 상태에 최대한 근접시킨 후에 국산 녹용의 우수성을 홍보하여야 비로소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정책도 뒤를 따르기 시작했고 학술부분도 활기를 띄어가고 있으니 양록인의 의지만 굳건하다면 양록은 장족의 발전을 할 것이다.\*